



정교회 주보



성 아르기리 새 순교자

성지 주일(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성 마르코 복음사도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성지 주일 제2응송 / 239, B 302

•성지 주일 찬양송 / 239, B 303

•성지 주일 입당송 / 239, B 304

•성지 주일 찬양송 / 239, B 303

•성지 주일 시기송 / 239, B 304

•사도경 : 필립비 4:4~9 / 239, 봉독서 462

•복음경 : 요한 12:1~18 / 240, B 305

•성지 주일 성모송 / 비고정축일 성가집 67

•성지 주일 영성체송 / 241, B 307

•‘주의 이름이 이제로부터’ 대신 ‘성지 주일 찬양송’ / 239, B 303

☞신랑의 예식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아르기리 새 순교자

우리 교회에서 4월 30일 축일로 기념하는 아르기리 새 순교자 성인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회석되어 보입니다. 그녀는 결혼 후 얼마 안 되어서 이웃의 터키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서 평화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이웃의 잘못된 생각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그는 그녀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녀의 남편의 사랑이 재판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재개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도 그곳에서도 그녀는 17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오히려 그녀가 힘을 얻는 기도와 인내로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를 말렸습니다. 그녀의 고난은 끊임이 없었고 컸습니다. 그녀가 안식하고 그녀의 유해를 이장한 후에 그녀의 유해는 향기를 풍기고 부패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푸르사-콘스탄티노플, † 1725)

주여, 모든 것이 우리 위한 것인가요?

신앙의 신조를 잘 살펴보면, 중요한 진리가 담겨있는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 3, 4항에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셔서, ... 본디 오 빌라도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든 것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은총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무한하신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위대한 신성을 두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뜻을, 당신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골고타의 순교적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저승을 무너뜨려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를 하느님의 왕국과 낙원의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해 깊은 곳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러면서 매일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교회에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성사들, 우리를 위한 고백성사, 우리를 위한 성찬예배,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말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영적 아버지들. 보이는, 보이지 않는 우리를 위한 매일의 셀 수 없는 혜택들. 우리 삶의 고난조차도 하느님의 혜택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서는 보답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의 원함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느님께 우리는 “네”라고 하나만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하느님께 “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느님을 따르려고 하나요?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주 작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을 존중하면서 하느님의 계명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의 신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매번 신앙의 신조를 고백할 때마다 무한한 감사가 우리 영혼에 넘쳐 감사함으로 주님께 말합니다. : 주여, 당신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서는 자의로 수난을 향해 걸어가시면서 ... 와서 다 함께 우리의 나쁜 생각들을 정화합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욕망에 대해 죽읍시다. 그리하여 그분과 함께 삽시다.”(신랑의 의식, 애니 성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성대주간과 축복된 부활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고백성사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교의 초기부터 대사순절은 공적인 속죄의 기간이었습니다. 곧,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간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치도록 하기 위해 죄의 덩불을 제거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만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고 느끼곤 합니다. 너무도 유명한 영화 ‘레미제라블’(1862년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 원작)에서 한 의사는 바스티유 감옥 안 자신의 어두운 감방 안에서 구두를 수선하며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곤 마침내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지고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는 바깥으로 나가길 두려워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그 어두운 감방 안에서 구두를 수선하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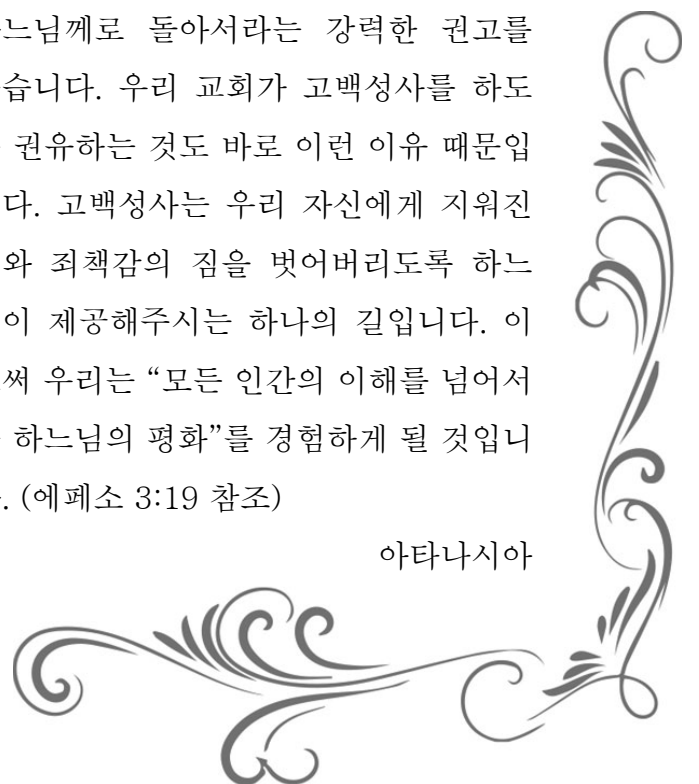
이 이야기는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이 일찍이 한 말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태양은 모든 사물들 하나하나에게 그 밝은 빛을 비추지만, 단지 우리의 눈꺼풀을 내려 닫음으로써 태양빛이 우리와 단절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이다.”

대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정신을 차



려서 참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또한 그럼으로써 죄의 어둠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강력한 권고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백성사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고백성사는 우리 자신에게 지워진 죄와 죄책감의 짐을 벗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제공해주시는 하나의 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페소 3:19 참조)

아타나시아



성대주간 및 부활절 예식 시간표

| | |
|---------------|---|
| 4월25일 성지주일 | 오전 8:45 - 조과 및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 오후 1:00 - 신랑의 예식 |
| 4월26일 성 대 월요일 | 오후 6:00 - 신랑의 예식 |
| 4월27일 성 대 화요일 | 오전 9:00 - 미리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6:00 - 신랑의 예식 |
| 4월28일 성 대 수요일 | 오전 9:00 - 미리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6:00 - 성유성사 |
| 4월29일 성 대 목요일 | 오전 9:00 - 대만과 및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6:00 - 주님의 거룩한 고난예식(12복음 봉독) |
| 4월30일 성 대 금요일 | 오전 9:00 - 대시과(1, 3, 6 시과) 오후 3:00 - 9시과, 만과,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예식 오후 6:00 - 에삐따피오스 예식 |
| 5월1일 성 대 토요일 | 오전 9:00 - 대만과 및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8:00 - 부활절 예식 및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 |
| 5월2일 부활주일 | 오전 11:00 - 사랑의 대만과 |

대교구에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성 대주간과 부활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성당에서는 성당 사무실에 예배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교구

■ **대사순절 기간 예배 유튜브 생중계**

코로나19로 인해 서울 성 니콜라스 주교좌 대성당에서의 성대주간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아가강화(雅歌講話)” 는 니짜의 성 그레고리오스 성인께서 기술한 책으로 구약성서의 아가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출판은 우리 한국정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도 역사적 사건으로, 정교회출판사에서 이전에는 교부들의 생애에 관한 책을 출판하였지만, 정교회의 초대교회로부터의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교부들의 가르침의 저서를 한국어로 출판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

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까지도 계속되어질 장기 사업입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모든 교부들의 가르침을 한국어로 출판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성 니콜라스대성당

■ **부활절 예배 안내**

서울 성당에서는 올 해 코로나19로 모든 신자분들의 참여가 어려워 부활절 예배를 세 번에 걸쳐 드리려고 합니다. 5월 1일 ①저녁 7-9시, ②저녁 9:30-11:30, ③밤 12-02시(슬라브어 사용 교인만 참석)에 신자분들의 신청여부에 따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착오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활절 달걀과 꽃 봉헌 신청**

부활절 달걀과 에피타피오스 꽃 장식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성당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